

Chapter

00

---

**문학 감상 태도**  
(문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

---



# Chapter 00

## 문학 감상 태도(문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

### I 작품을 읽는 태도 - 문학 텍스트와 <보기>를 중심으로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아시나요? 그건 바로 '작품을 읽는 태도'입니다. 이때까지 내신 시험을 위한 공부는 잊으셔야 합니다. 아마 이 책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학을 공부할 때, 시어의 의미, 상징, 표현법 이런 것들을 필기하고 암기하기 급급했을 겁니다. 소설도 마찬가지로. 갈등의 의미, 이 대상의 상징적 의미, 주제, 시대적 배경 따위를 필기하고 외우기 바빴을 거예요.

왜 이 시의 시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이 소설의 갈등 양상이 그런 의미를 갖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로요. 이 태도를 버리셔야 합니다. 내신 국어에 넘서 배우는 내용들은 굉장히 사후적이고 지식적입니다.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을 읽고 그와 같은 내용을 바로 끌어낼 수 없어요. 철저하게 배경지식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수능에서는 우리가 아는 작품보다 모르는 작품이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작품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로 볼게요.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Q. 이 시에서 '어둠'은 부정적인 대상이다. (O, X)

만약 O를 선택하셨다면 꼭,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X를 고를 거예요. 여기서 어둠은 화자가 풀벌레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대에 불과하니까요. 그럼 O를 고르신 분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내신 공부를 할 때 배운 시에서 '어둠'이 부정의 의미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를 꼭 버리셔야 해요. 여기서의 어둠은 '부정'적 대상이 아닙니다. 부정이라고 할만한 근거가 제시된 작품의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쉽다면 다른 예시도 보겠습니다. 아래의 작품을 읽고, 선지를 판단해보세요. 그리고 본인 나름의 판단 근거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시다.

Q.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O, X)

### #근거 및 해설

→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편 49p)

-2018.06 [26~29]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온다

처마 끝 곱게 늘어난 주렴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곶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

어지이다

- 조지훈, 「고풍 의상」 -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B]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벗  
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 부연(附椽): 긴 서까래 끝에 덧엮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 호장: 회장(回裝). 여자 저고리를 색갈 있는 형식으로 꾸민 것.

\* 초마: '치마'의 방언.

33.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34.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 낸다.
-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35.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36.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통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한 줌 뺏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덮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뽕 뽕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 Chapter 03

## 산문문학의 이해와 감상(현대소설&고전소설 + 극 문학)

### I 산문문학

#### 1. 소설이란?

소설은 '서사 갈래'의 대표적인 작품 양식입니다. 그리고 서사 갈래는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하는 장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말 그대로 특정한 'Event'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야기가 성립될 수 없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도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피는 거예요. 즉, 소설은 사실상 이야기 (Story) 자체가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를 가정해 봐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이 '사건'이라는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설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참, 이때 사건은 '갈등'과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등 없는 사건은 성립할 수 없어요. 크든 작든 반드시 사건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때 갈등은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 사건(갈등)은 어떻게 파악하나? 우리가 질리도록 외웠던 **소설의 3요소**를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작품 내의 전반적인 '상황'**까지 잡아줍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할게요. 소설에서의 '인물'은 항상 욕망을 지닙니다.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건'은 이러한 인물의 욕망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물들 사이의 욕망이 충돌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인물의 여러 가지 욕망이 충돌한다면 내적 갈등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땐 그 인물의 욕망 즉, 심리 상태와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곧 사건과 연결돼요. 물론 인물 간 관계도 당연히 체크해 주셔야겠죠?

그런데 소설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설의 '플롯'입니다.

## 2. 플롯

플롯이란, 사건을 배열하고 결합하는 서술 원리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 : 영호는 밥을 먹고 산책을 했다.

B : 영호는 밥을 먹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산책을 했다.

A와 B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진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생각해본 후 아래로 내려와주세요.

A와 B의 차이점은 '인과성'입니다. A는 그냥 밥을 먹고 산책을 했다는 사건을 단순히 '나열'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B는 어떤가요? 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산책을 했습니다. 밥을 먹었다는 사건과 산책을 했다는 사건 사이에 '그럴싸한' 인과가 부여됐습니다. 실제로 밥을 먹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소화시킬 겸 조금씩 걷잖아요. 즉, 영호의 행동(사건) 사이에 인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A보다 B를 읽을 때 조금 더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죠.

A를 읽으면서는 밥을 먹고 산책을 한 게 단순히 시간에 따라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불과하다고 느껴지는 반면 B를 읽으면서는 영호의 행동에 이유를 찾으면서, 사건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밥을 먹고(사건 1),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인과)' 산책을 하는(사건 2) 흐름이잖아요.

이게 '플롯'입니다. **사건과 사건을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있어요.

그럼 검사검사 인물의 욕망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영호는 밥을 먹고 '소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죠. 즉, 욕망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걷죠. 즉,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건이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면서 소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렇게 전개되는 사건은 인물의 '욕망'과 관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배경까지 같이 확인해야겠지만, 여기서는 플롯을 이해하는 것이 주목적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 ① 소설의 '등장인물'
- ② 인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전개 과정  
(내적 갈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내적 갈등)
- ③ 그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
- ④ 작품 내의 전반적인 '상황'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소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8~30]

✓ 읽기 전 활동

이번엔 (나)에 대한 <보기>밖에 없네요. (가)는 그냥 읽어주세요. 제목을 보니 생명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스스로의 삶,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화자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고 합니다. 1~3행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문제 상황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자 합니다. 화자의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어요.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그렇게 간 '아라비아 사막'은 아주 극한의 환경이네요. 태양이 작열하고 알라 신만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음... 생명이 부대길 때 더 힘든 환경으로 가네요. 그렇지만 알라의 신이 '고민하고 방황'한다는 걸 보니 생명이 병든 나무처럼 부대끼는 생명력이 약한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화자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것이니까요. 끊임없이 고뇌해야 할 겁니다.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  
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 허적 :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그렇게 사막에 가서 '고독' 가운데 홀로 서면 '나'와 대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극한의 상황에서 성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마주하는 것을 생명력 회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작품 총평

화자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막으로 가서, 고독 속에 '나'와 마주합니다. 그 부분에서 극복 의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예요.

— <보 기> —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해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읽기 전 활동

이제 (나)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나만 한번 봅시다. 도시로 사람들이 다 이주해버려서 농촌이 피해져 가는 상황이 제시되나 봅니다. 그리고 그런 암울한 현실을 '농무'를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요. 농무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집단적 행위인데, 암울함을 드러낸다고 하니 역설적이기도 하네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농무를 통해 농촌의 암울함을 드러낸다! 이게 핵심이예요.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농무를 끝낸 상황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이주하고 남은 농촌과 텅빈 운동장이 비슷하기도 하네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에 대해 '원통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서인지, 팽과리를 들고 나가도 쪼무래기들 밖에 없고, 애들만 남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 ② 시적 상황 파악하기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에 허탈함이 느껴지나 봅니다. 사람들의 괴로움도 포착할 수 있어요. 화자가 보는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피폐한 농촌 현실과 이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에 '신명이 난다'라고 표현하네요. 농무를 통해 힘든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진짜 신명이 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작품 총평

사실 이 작품은 첨언할 게 없습니다. <보기> 그대로 힘든 농촌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거기에 화자는 비통함과 허탈감을 느끼죠. <보기>에서 나온 그대로 읽어주면 화자의 정서, 태도, 상황 전부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습니다.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계절적 시어 없습니다.

-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 밤→ 낮 시간 변화 없어요!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나)에서 오히려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죠. '징이 울린다', '킬킬대는구나' 등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고요.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 네, 마지막 두 행에서 대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을 ~하고 ~를 ~꺼냐'의 구조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 (나)는 일단 확실히 탈속성부터 말이 안 됩니다. 속세인 농촌 사회를 전제로 농무를 끝낸 상황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두 작품 모두 이상향에 대한 동경도 드러나지 않지만요.

29. (가)의 [나]와 ㉠~㉣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 ㉠ 병든 나무, ㉡ 영겁의 허적(虛寂), ㉢ 열렬한 고독  
 ㉣ 원시의 본연한 자태, ㉤ 회한(悔恨) 없는 백골

-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 네, '병든 나무'는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입니다. 작품을 읽을 때도 문제 상황으로 파악했어요.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고, '나'를 마주하며 그 문제 상황을 극복합니다.

-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 네, 2연의 맥락상 영겁의 허적은 아라비아 사막의 극한적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독' 속에서 '나'와 대면하니까 충분히 맞는 선지네요.

- ③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나므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는게 아닙니다. '열렬한 고독' 가운데, '호올로 서면'나와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고독은 부정, '나'에 도달하는 건 긍정이니까 맞겠지~하고 골랐다면 틀리는 문제예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 네, '나'를 마주하여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는 것이니, '나'는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 '백골을 쪼이리라'라는 표현을 통해 죽음의 이미지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백골'은 생명력이 없는 대상 이니까요. 즉,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생명의 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③

〈 보 기 〉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폐쇄되어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 네, 농무를 마치고 힘을 얻기보단 술을 마시며 원통해 하니까 무력감이라고 볼 수 있죠.

-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 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줘.

→ 제시된 표현들은 흥겨운 축제와는 안 어울리는 표현들이죠? 힘든 농촌 현실과 연결하면, 충분히 농무를 마냥 축제로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죠.

21.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서 함이정은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 현재 ‘함이정’과 ‘조승인’의 대화 장면에서 ‘동연’과 ‘서연’이 싸우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현재에서 과거의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묘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동연’과 ‘서연’은 작업장에서 싸우던 인물이죠? 과거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 ③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조승인의 대사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것이, ‘동연’과 ‘서연’의 대립인데, 이건 이미 과거에 발생한 이야기이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조승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 네, 과거 이야기의 갈등이 ‘동연’과 ‘서연’의 입장 차이로 발생하니까 당연히 ‘동연’은 갈등의 한 축으로 기능합니다.

- ⑤ “돌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 ‘서연’은 부처의 모양보다 그 속에 깃든 마음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관련된 사건이, 마지막 장면에서 부처와 사라지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죠. 인물의 생각과 연결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니, 주제 의식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연’의 생각과 돌부처들이랑 춤추면서 극락문이 열리는 그 장면이, 주제와 무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22~27]

✓ 읽기 전 활동

이번에도 <보기>가 있지만,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합니다. 바로 작품으로 들어갈게요.

(가)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나?……’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구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쁜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 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틈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그러나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쁜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이 장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쁜이’가 시집가는 장면입니다. ‘신랑’의 몸이 사라지고, 이쁜이와 ‘신랑’이 차에 타요. 이걸 근거로 이쁜이가 결혼하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경사’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이 상황 자체가 어머니의 반응처럼 아주 슬픈 사건을 다루는 장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죠. 결혼을 하는 장면이니까 사람들이 ‘경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는 딸을 보면서 어머니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시집가는 딸이 걱정인가 봐요. 정신차리고 조심하라며 당부하는 구절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딸이 가고, 공허함을 느끼네요. 내가 키운 딸이 내 손을 떠나 시집을 가니까 공허한 감정을 느끼겠죠.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심리도 파악하면서 넘어 갑시다.

### 제6절 몰락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흠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이번에는 방금 본 장면에 대한 부가 설명과 더불어 소재 목록과 함께 다른 장면이 제시됩니다. 여기서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는 바로 앞에서 본 장면이겠죠?

그리고는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또 한편’ 같은 시간 대에서는 신전 집 사람들이 낙향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달프게도’ 시골로 내려간다는 걸 보니, 좋지 않은 일로 어쩔 수 없이 시골로 내려가나 봅니다. 소재목록부터 ‘몰락’이네요. 신전 집이 ‘몰락’한다는 의미로 낙향을 하나봅니다.

## ✓ 심화적 독해 태도

### ①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여기서 ‘이쁜이 어머니’가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외딸을 가진 흠어머니’였기 때문이네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을 가면 이제 흠몸이 되니까,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면서 딸이 시집가는 그 상황에 대해 슬퍼했군요. 앞에서 어머니의 심리를 정확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여기서라도 딱 잡아주셔야 합니다. 혹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특이한 구절입니다. 서술자가 대놓고 ‘독자는~’ 하며 독자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일종의 서술자 개입이죠. 그리고 숨겨진 사건에 대한 정보도 알려줍니다. ‘점룡이 어머니’가 ‘신전 집’이 낙향할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 말 그대로 지금 사건이 발생합니다. 점룡이 어머니가 말한 대로 신전 집이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낙향을 하는 장소도 알려주는데 조금 의아하네요. 서울에서 아예 시골로 가는 게 아니라, ‘경기 강화’로 갑니다. 애매하게 수도권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사건 이해하기

네, 공의로 발령 난 둘째 아들을 포함해 신전 집 사람들이 서울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계속 신전 집의 낙향에 대한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왜 시골로 내려가는지,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습니다.

23.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 '이발소 소년'은 '신전 집'이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는 인물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을 묻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답만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정답 선지 확인하기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 주변을 관찰하고, 신전 집이 떠난다는 그 변화를 포착합니다. 또, 작품에서 이발소 소년을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어요.

오답 선지 확인하기

-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⑤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2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 [A]는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걸며 이전의 숨겨진 사건을 알려주고, '신전 집'이 어디로 떠나는 지에 대한 정보도 주는 구절이었습니다. 특히, 서술자 개입이 독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독자에게 말을 걸면서 숨겨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언급합니다. 지문에 드러난 장면 이전에 '점룡이 어머니'가 했던 말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comment

'점룡이 어머니'가 '신전 집'이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장면은 주어진 지문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숨겨진 사건'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장면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원래 소설 작품을 가정한다면, 그 소설을 순서대로 읽은 독자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됩니다. 서술자가 '독자는 ~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어요. 소설에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 이전에 나왔던 장면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는 게 맞는 말이 돼요.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점룡이 어머니'가 신전 집이 떠날 거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점룡이 어머니'를 [A]에서 언급하고 있으니 그를 환기하고 있네요.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네,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말을 걸고 있죠.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일단 독자의 망각에 대해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점룡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죠.  
또, 정보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여기서 '정보'는 '점룡이 어머니'의 말이에요. 점룡이 어머니는 신전 집이 낙향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향을 하고요. 그럼 [A]에서는 정보가 실현되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⑤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신전 집이 경기 강화로 내려간다고 알려줍니다.